

市-노동계, '광주형 일자리' 해법 논의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논의 단장 노동계 추천, 사무국장 개방형 4급 선임에 동의 한국노총 광주본부 "내부 의결 거쳐 통보...시간 걸려"

광주시와 노동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는 노사상생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로 가칭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을 제안했고 노동계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벼랑끝까지 몰렸던 광주형 일자리 해법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한국노총 광주본부 사무실을 찾아 윤중해 의장을 만나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박남언 일자리경제국장, 노총에서는 최정열 수석부국장, 문홍근 지도위원, 박상복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한 면담에서 시와 노동계는 광주형 상생일자리 사업의 성공과 확산을 뒷받침할 새

운 거버넌스 구축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재단 단장은 노동계에서 추천하고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아닌 개방형 4급으로 선임하는 방안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재단 설립 업무를 위한 설립 준비팀과 노사상생업무를 위한 상생지원팀을 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다만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의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시에 통보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중해 의장은 "재단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 답변할 단계는 아니다. 내부 논의도 거치고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 결과를 시에 통보하겠다"며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답변하기에는 빠르다"고 말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지난해 1월14일 노사상생도시 선언과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광주시 노동정책 전반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27일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노동정책 전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을 논의하고 주먹을 맞대고 있다.

침하는 기구다.

노동 관련 단체와 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동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수행한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지향하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상생, 동반성장'이라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확실히 '고비용·저효율'과 '노동시장의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안은 '광주형 일자리' 불참 선언으로 그동안 팍 막혀있던 노동계와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정부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로 주목받았으나 최근 노동계가 '노사상생이 사라졌다'며 불참을 선언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고 지역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졌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정상 추진과 인공기능 광주만들기를 광주의 양 날개로 삼아 광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최형범 기자



호남 청년단체 '방사광가속기' 유치 지지

"일자리 창출 기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를 위해 차세대 주인공인 청년들이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적극 나섰다.

전남도 '청년의 목소리'를 비롯 호남권 12개 청년단체 대표는 27일 무안청년센터에서 차세대 기술 개발의 핵심기반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양영환 청년의 목소리 대표와 손순관 광주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정왕용 전

북4-H연합회 회장, 김호영 전남4-H연합회 회장, 이창재 (사)전라남도청년CEO협회 회장, 김은광 (사)광양시행동하는양심협의회 회장, 김하나 빛나는청춘 대표, 신나라 청년이음 대표, 김형식 무안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박빈 무안군4-H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호남권이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나주에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행복주택 신청하세요"

국토부, 다음달 7일부터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7일 청년과 신혼부부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다.

올해 공급하는 행복주택 물량은 총 2만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 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하여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무주택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돼 입주 편의가 개선됐다.

아울러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조인호 기자

등구, 창업지원 청년 정착 프로젝트 본 궤도

광주 등구가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비청년 창업자와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계림1동 1~2동 일대 빈집이나 빈 점포를 활용,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창업을 지원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3월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청년창업자 10팀을 예비 선발하고, 창업아이템과 부합한 빈집·빈점포 매칭 절차를 마친 5팀의 예비청년창업자와 이날 약정식을 가졌다.

서구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Job)이라"

광주 서구는 27일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Job)이라!' 참여자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Job)이라!'는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정규직 채용과 함께 최대 1백만 원의 취업유지장려금, 자기개발지원금, 교통비, 직무교육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된다.

이번 교육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와 바람직한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일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 "사직동 도시재생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광주 남구는 27일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직동 도시재생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사직동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직동 거주 주민이거나 활동가, 주민협의체에 몸담고 있는 위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30명 선착순이며, 참가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이다.

아카데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은 사직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674-8301~4) 또는 이메일(sajik1922@naver.com)로도 접수 가능하다.

북구, 서민금융 안전망 구축

광주 북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주민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자 '2020년 금융·고용복지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이 발맞춰 금융 취약계층 신용회복 및 자립을 지원하고 촘촘한 서민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내달부터 △금융복지 지원 △현장밀착형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수요자 맞춤형 생활 지원 등 3대 분야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광산구, 광산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7일 광주 광산구는 광산세무서를 찾는 납세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 민원실 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세무서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경우, 여러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민원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행정기관에서 서류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기계.

광산구는 발 빠른 준비 작업으로 광산세무소 개청 20여일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8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엄벌에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노총인용서단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만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유익한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인 이해관계에서 세인은 승리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 보험료 | 고소득층 | 중위 | 3분위 | 2분위 | 저소득층 | 빈부 |
|-------|----------|----------|---------|---------|---------|----|
| 2016년 | 240,833원 | 125,531원 | 79,147원 | 48,103원 | 26,697원 | |
| 2015년 | 1.1배 | 1.7배 | 2.1배 | 2.7배 | 5.3배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